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우기 및 혹서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김포데일리 | 승인 2025.06.12 14:13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김태호)는 6월 11일 직원 및 건설현장 현장대리인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기 및 혹서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김포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작업계획 전반에 관한 내용 외에 우기 및 혹서기 대비 현장점검 요령과 온열사고대처,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구호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본부 안전관리센터의 특별 안전컨설팅을 통해 현실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호 김포지사장은 "안전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선제적인 위험요소 제거로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